

13주 “이스라엘은 어떨습니까?”

도시 이니셔티브를 위해

저는 Alex이고 이곳의 목사 중 한 명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로마서의 신약에 서신을 통해 교육 시리즈를 계속할 것입니다.

지난 주말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주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집중할 4가지 주요 목표를 포함하는 "도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 빈곤 - 우리는 포틀랜드-메트로 지역의 이재민 공동체와 학교에서 세대 빈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2023년 가을까지 현재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1개에서 2개 학교로, 그리고 주당 1일에서 4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교육 - 우리는 특히 전 세계 어린이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500명의 어린이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그 수를 1000개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3. 물 - 우리는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 사회를 위해 지역 파트너와 함께 10개의 새로운 깨끗한 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교회 - 우리는 Portland-Metro 지역에 3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갱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투명 상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배달 시스템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희생적으로 베풀고, 전심으로 섬기고, 만물의 갱신을 위해 함께 협력하도록 초대하십니다.

MVMT 1: 이스라엘은 어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에 로마서 8장에서 중단한 곳은 이 아름다운 크레센도였습니다.

“내가 확신하건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귀신이나 현재나 장래나 어떤 권세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밖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로마서 8:38-39

학자들은 바울이 다음 3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토론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의 응집력 있는 생각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는 30분 안에 3개의 부분을 모두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초대 교회가 직면한 실제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떨습니까?

이 시리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강조해야 할 점은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 예수를 통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대부분?)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보는 그들의 전체 방식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 장에서 진짜 질문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약속을 취소하셨거나

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들이 오해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실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발견한 교차로입니다.

바울은 3장에 걸쳐 직접 도전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 줄 것입니다.

9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MVMT 2: 바울의 사랑과 고뇌(9:1-5)

1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이 그것을 확증하노니 2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괴로움이 있도다. 3 내 백성 곧 내 족속 4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할지라도 그들의 자녀는 양자됨이다. 그들의 신성한 영광, 성약, 율법을 받는 것, 성전 예배와 약속. 5 그들의 조상은 조상들이고 그들에게서 인간의 혈통을 이어받은 메시아는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며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로마서 9:1-5

● "양심"

○ 양심 - 도덕적으로 선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우리 영혼의 부분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른 것을 피하게 하고 본능적으로 옳은 것을 갈망하게 한다.

○ 우리의 양심은 성령의 쇄신이 필요합니다.

○ 바울은 양심이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면 믿음이 가는 인도자라고 말한다.

● “내 마음에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습니다.”

○ 이것은 나쁜 하루를 보내는 것 이상입니다.

■ 큰 슬픔.

■ 끊임없는 고뇌. - 깊은 슬픔, 우울증.

● 왜?

● “내 백성 곧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바라나이다.”

○ 그의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고뇌'는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거부하여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저주 = 파멸

■ 이것에 대해 쉬운 것은 없습니다.

■ 이 단어는 파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단절하십시오. 즉, 저주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 이스라엘의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바우로는 자신이 영원히 그들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 잠시 앉아있자. 그것이 가라 앉게하십시오.

■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됨. 영원한 절망, 영원한 슬픔, 영원한 고뇌. 터널 끝에 빛이 없습니다. 희망의 불꽃은 최악의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뜻이라면 정직하게 모든 것을 영원히 포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료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바울은 참으로 이 유대인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들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 그의 커뮤니티였습니다.

■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그들 대부분은 그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를 미워했습니다. 이 목록을 보세요...

9:23-25 – 바울을 죽이기 위한 첫 번째 음모 – 다메섹에서 바구니에 담긴 벽을 통해 내려졌습니다. 9:29-30 – 바울을 죽이기 위한 두 번째 음모 –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파견됨.

13:45 –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반대/비방을 당함.

13:50 –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박해와 쫓겨남

14:2; 5 –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이방인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14:19 –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리스트라에 남겨졌습니다.

17:5-10 –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남. (“유대인들이 시기가 심하여 시장 에서 악한 자들을 모아 떼를 지어 성내에서 소동을 일으키니라.”)

17:13-14 – 일부 유대인 지도자들이 군중을 선동하고 달아나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베뢰아에서 쫓겨났습니다.

18:12 –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 재판석으로 끌려갔지만 기소는 기각되었습니다.

19:23-41 – 기독교가 아르테미스의 우상 제작자에게 실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 에베소의 길에 관한 폭동이 일어납니다(유대인이 참석하지만 선동만 함).

21:27-40 –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살인하려는 의도로 매를 맞음.

23:2 – 대제사장인 예루살렘의 명령에 따라 바울이 입에 맞았습니다.

23:12-22 – 40명의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 유대 지도부와 음모를 꾸밉니다. 바울의 생명에 대한 이러한 시도를 피하기 위해 바울은 가이사랴로 옮겨졌습니다.

25:1-5 –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매복하여 죽이도록 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 이 목록은 바울의 말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 가족을 위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습니까?

○ 당신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짓을 하고 돌로 치고, 당신의 이름을 욕하고, 당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당신을 때리고,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한 무리로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기독교적 정당성은 없습니다.

○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 장은 잘못 이해되어 지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반유대주의의 불을 지폈습니다.

○ 나는 그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들이 바울이 로마서의 이 부분을 시작하는 방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은 어떻게 든 더 많은 증오에 사용되도록 왜곡되었습니다.

○ 바울은 문지기는 아니었지만 너무도 쉬운 복수의 길을 거부한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 깊은 사랑이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 대신 바울은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 그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죄가 진정한 원수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을 조종하고 속여 해를 입히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일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혈과 육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

■ 사탄의 칭호

● 거짓말의 아버지.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적 -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 **accusor** - 항상 당신을 비난하는 짜증나는 목소리

● 유혹자 - 좋고 옳은 것을 버리다

● 똥의 제왕 (**Belzebulb** -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칭호)

● 사기꾼 -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 거짓말쟁이 - 거짓말을 믿는 것은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 우리가 이 피조물에서 찾을 수 있는 주요 특징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그의 적대감, 교활함, 능력 및 사악한 의도입니다.

○ 이야기: “분노가 연민으로 바뀔 때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16세기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네 인생의 후반부는 6번째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날이다 - 비록 살상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 요점은 젊음의 뜨거운 열정은 결국 분노, 증오, 분노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 또는 Yoda의 말에서, "두려움은 어두운 면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려움은 분노를 낳고 화는 증오를 낳고 ... 미움은 고통을 낳습니다."

■ 공홀- 자신이 멸망과 속임수의 길에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자유케 하기를 원함.

• 연민은 행동을 형성한다 - 이것은 필수적이다.

● 참여 여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 폭력적인 증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두 자릿수 증가. 그렇긴 해도 사람들이 내가 어떤 정치적 의제에 의해 오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 찢렸습니다.

■ 그러나 범죄는 제쳐두고, 우리의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보기 위해 많은 노력, 연구 또는 평판이 좋은 출처를 인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온라인상의 거의 모든 장소의 댓글 섹션을 살펴보세요.

■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의 악에 맞서고 저항하는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 도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 우리가 FTC 이니셔티브를 실행함에 따라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 이것은 원래 질문에서 우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전환: 결국,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동기,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제, 그리고 다음 세 장을 쓴 바울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MVMT 3: 바울의 테제 및 3가지 지원 요점

● “4 그들의 자녀는 양자가 됩니다. 그들의 신성한 영광, 성약, 율법을 받는 것, 성전 예배와 약속이 있습니다. 5 그들의 조상은 족장들이요, 그들에게서 만유의 하나님이신 메시야의 인간 가계가 나왔으며 영원히 찬양을 받도다! 아멘” -로마서 9:4-5

○ 이것은 다음 3장에서 나올 모든 것을 추적하기 위한 바울의 축약형입니다. 그러나 구약을 잘 알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이야기를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것이 이제 그의 논문이 된다.

테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실하시다.

여기에서 11:32까지 그는 자신의 논문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주요 요점과 추가 학점을 위한 1개의 하위 요점을 만드는 세 가지 주요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저는 이 장들을 요약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언젠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여러분이 발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1: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았습니까? 응답 1: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중에서 약속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로마서 9:6-7

○ 육적 혈통의 일부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 그는 그들에게 조상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이 점을 강조합니다.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 일부는 이스라엘입니다.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사람의 욕심이나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9:16

도전: 이 중에 도전이 생기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자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는 자를 불의하신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 바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당신과 나는 누구입니까? ● 이것이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체 편지를 염두에 두십시오.

● 앞서 그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그들의 선택.

●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를 세상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 성경이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전체적이라고 가르치지만 그의 주권에 따라 우리의 결정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 바울은 하나님을 긍정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 바울은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헐뜯는 교만한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 구절을 위해 바울의 요점은...

포인트 1: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때 약속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9:6-29)

● 예수님의 움직임은 이스라엘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하위 요점: 9:30-10:21에서 바울은 놀라운 사건의 전환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그의 논증의 주요 경로를 떠나 많은 이방인이 믿는 반면에 많은 유대인이 메시아 예수를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 이 또한 하나님께서 줄곧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흔히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그의 백성을 사용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의 계획의 전달 체계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람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소명을 이루심으로 성공하셨습니다.

○ 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때 하나님이 하시던 일과 일치한다.

그는 11:1에서 주요 담론 경로를 선택합니다.

● “그러면 나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하느님께서서는 미리 아신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1:1,2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리고 마침내 버리셨습니까? 응답 2: 아니요! 많은 사람들 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 바울은 실제로 자신을 가리키며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는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포인트 2: 하나님은 많은 유대인을 구원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십니다(11:1-10).

하나님은 항상 유대 민족 가운데 충실한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때 하신 일과 일치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걸림돌이 되셨다는 다윗의 말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모든 상자를 부수셨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 “내가 다시 묻노라 그들이 넘어질 정도로 넘어졌느냐?” -로마서 11:11

질문 3: 복음은 유대인을 구원할 수 없는가? 그들은 회복을 넘어 넘어졌습니까? 응답 3: 아니요!

포인트 3: 하나님의 성취의 절정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11:11-32)에 있다.

●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 하나님의 백성을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원 가지는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은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 이방인을 이스라엘보다 낮게 여기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은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완악하게 하였거니와 온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리라 구원을 받으라.” -로마서 11: 25-26a

○ “신비” - 이전에는 감춰졌거나 모호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1. 화신

■ 2. 그리스도의 죽음

■ 3.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요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 4. 부활 때에 일어날 변화

■ 5.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 범위와 비밀과 선하심에 대하여 경이로움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런 다음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때로는 노래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기

33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의 깊음이로다!

그의 판단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지,

그리고 추적을 넘어선 그의 길!

34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의 조연자가 되었습니까?”

35 “누가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으시겠습니까?”

36 만물이 그에게서,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영원히 영광을! 아멘. -로마서 11:33-36